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20. Vol. 31. No. 3 pp. 251~275.
ISSN 1225-636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20.31.3.251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화와 영향요인 검증*

홍 예 지**

초 록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아동·청소년의 구조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질적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변화의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1~5차년도 데이터의 492명의 초기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완만한 증가집단'(51.29%), '급감소집단'(7.39%) 및 '상위유지집단'(41.3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유형화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개인요인 중 우울이, 부모 및 또래요인 중 또래소외감이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잠재집단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사회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의 개인차를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초기청소년, 자아존중감, 종단연구

---

* 이 논문은 2019년 제 5차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yeaji02@snu.ac.kr

Ⅰ. 서 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아동・청소년의 구조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7.1%로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 아동 비율은 6.7%라고 보고하였다(류정희 외, 2019). 한국사회에서 맞벌이의 증가, 소득격차의 심화, 불안정한 고용 및 가족해체의 증가 등 전반적인 가족의 구조 및 생활환경 변화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돌봄 기능을 제공했던 '공부방'은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체계의 일환으로 2004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어 공적인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기본 및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문화 체험 활동, 상담 및 가족지원 등의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홍보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보호 개념을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7).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총 4,211개소가 운영되어 109,610명의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9). 또한 2016년 말 기준 경제상황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수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25.3%, 중위소득 50초과 85%이하 가정 38.2%, 중위소득 85% 초과 100% 이하 가정 28.9% 순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이 저소득 빈곤 가정의 열악한 사회적 자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7).

빈곤 가정에서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의 부족은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한아름, 2017). 더불어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자녀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김용회, 한창근, 2017). 이는 아동・청소년을 다양한 위험 요인에 쉽게 노출하게 하고, 특히 우울,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한아름, 2017; 황윤미, 2017; 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적절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긍정적 발달을 이끌어 내도록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거나 연령별 단순 비교를 통해 발달적 변화를 추론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정익중, 2007).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발달은 개인 특성을 넘어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기반하여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밖에 마주하는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초기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변화 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개인, 부모 및 또래, 지역사회 요인 중 자아존중감의 잠재집단의 영향요인으로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말한다(Rosenberg, 1965).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초기청소년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기를 말하며,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연령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에서 13세를 포함하는 시기로(홍예지, 이순형, 2016b; Rueth, Otterpohl & Wild, 2017), 정서적 각성이 높아지고,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이 시기의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다(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 무엇보다 1/3이상의 초기청소년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Harter, 1990),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복지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익중, 2007;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청소년기에 광범위해진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이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다(홍예지 외, 2015).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충동, 식이장애 등과 관련이 있으며(Emler, 2001), 부정적 또래 집단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어 음주, 흡연, 휴대전화의존도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익중, 2007; 홍예지, 이순형, 2016a; Leung, 2008).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는 두 가지의 대립된 가설이 존재한다. 연속성 가설(continuity hypothesis)(Cole et al., 2001)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화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며, 변동성 가설(variability hypothesis)(Harter, 1990)은 자아존중감에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사춘기의 시작, 형식적 및 조작적 사고의 발달 등과 맞물려 초기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전환기이며,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 변화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정익중, 2007).

변동성 가설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중기나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회복되어 안정화되거나 증가 양상을 보이거나, 아동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이 초기 청소년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청소년기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이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은 상승형, 하강형, V자형, 역V자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Harter, 1990; Robins & Trzesniewski, 2005).

2.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생태체계적 변인과의 관계

1) 개인요인

먼저 초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지만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은 적다(Baumeister & Sommer, 1997). 그러나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성차는 조금씩 커지는데(Emler, 2001), 이는 남녀 간 신체적 매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정익중, 2007). 즉, 여학생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의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검토한 선행연구가 몇몇 존재하는데, 홍예지와 이순형(2016a)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5년 간, 3번의 시점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모든 시점에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반면에, 정익중(2007)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연구마다 혼재된 결과가 존재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련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해 낮은 자기 가치감을 느끼고, 인지적 왜곡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힌다(이은경, 박성연, 2011). 불안정적 환경에서 심리적 지원의 부족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 심리적 반응 즉, 우울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때론 그 수준이 정상 범주를 넘어서기도 한다(Kim & Cicchetti, 2006). 특히 우울의 절망이론(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Abela & Sarin, 2002)은 아동이 경험하는 위험요소가 부정적인 자아 신념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소극적 아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련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지만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2) 부모 및 또래요인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초기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oopersmith, 1987).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가장 일관적으로 예측한다(Berk, 2007). 아동은 태생적으로 양육자와 상호작용의 강한 욕구를 가지며,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은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의 자기 존중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owlby, 1982). 그러나 저소득층 또는 빈곤 가정에서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적 양육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이봉주, 김광혁, 2007; Berger, 2004; Plotnik, 2000),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Plotnik(2000)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근거하여 빈곤 가정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설명하였다. 즉, 빈곤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주변의 적은 가용 자원은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외에 자녀 양육관련 요인에 투자되기 어려워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학대 가정에서 부모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보이며(Cerezo & Frias, 1994),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기

능(I-self function)과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자아 기능(me-self function)이 역기능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Harter, 1998). 그러나 자녀가 초기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것이며, 이에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령기에 가정 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Toth, Cicchetti, MacFie, Maughan & Vanmeenen, 2000), 낮은 자아존중감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와 위축에 기여한다고 하였다(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의 수용 및 소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한 Leary(2001)의 소시오미터 이론(sociometer theory)에 근거하여 또래 간의 다양한 역동성 중 또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미있는 사회적 유대감이 사라질 때 느끼는 소외감은 또래 관계 내 미묘한 갈등과 차별에 기인하며 이는 대표적인 심리적 위험 상태다(Cacioppo & Patrick, 2008). 선행연구(유창민, 2017;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Denissen, Penke, Schmitt & Van Aken, 2008)는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고립이나 소외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창용, 이주연과 신유미(2015)는 중학교 1학년의 또래소외감이 2년 후의 자기비하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유창민(2017)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소외감이 5년 간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자아존중감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이 취약한 양육 환경에서 지각하는 지지체계의 부족은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김혜금, 양숙경, 2014)는 데 논의의 중요성이 있다.

3) 지역사회요인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성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긍

정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지각하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또래, 교사와의 친밀도 및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및 비행행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서원경, 2014; 한아름, 2017).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을 살펴본 선행연구(김양이, 박미란, 2007; 이훈, 신혜종, 2008; 황윤미, 2017)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만족도가 우울과 공격성을 낮추는 완충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종단연구는 부족하지만 임춘희, 이선형과 이경림(2010)은 지역아동센터를 3년 이상 장기 이용한 고학년 초등학생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센터를 이용하는 이들의 이용 시기가 점차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으로, 2013년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위탁하여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발달, 발달 환경, 센터 이용 등을 조사하였다. 원 자료는 층화집락표집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이 1년 이상인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이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3차년도(2016), 4차년도(2017) 및 5차년도(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연구 변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의 5개년도 중 3개년도 이상에 성실히 응답한 청소년 총 492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243명(49.4%), 여학생은 249명(50.6%)이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의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예측변인은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인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도구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변인		측정 및 조작화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1차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의 총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해당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68
	2차		.74
	3차		.79
	4차		.79
	5차		.79
예측요인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90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83

변인	측정 및 조작화	*Cronbach's α*
또래 소외감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를 번안 및 수정한 김지연(1995)과 황미경(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의 또래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63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도	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및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되었다(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92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다수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결합된 모형으로 동일 집단 내에서 이질적 성장 특성을 보이는 하위 집단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Jackson, Sher & Schulenberg, 2005). 모든 개인이 하나의 모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으로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과 다르게 이는 집단 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질적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별로 각각 다른 성장요인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Muthén & Muthénm 2000). 이에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5년 동안의 자아존중감의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잠재집단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검증하는 통합적 모형을 적용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적의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ABIC를 이용하였으며,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

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하는데 대략 0.8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χ^2 차이검증 즉, LMR과 BLRT을 살펴보았다.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p*값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류된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Vermunt(2010)의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변인이나 결과변인이 지표변인과 함께 모형에 포함될 경우, 잠재집단 분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개발되었다(Asparouhov & Muthén, 2014). 따라서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집단 분류의 변화에 미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단계 접근법의 1단계에서는 잠재집단 지표를 이용해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집단 사후분포를 이용해 가장 확률이 높은 변인을 생성하고, 3단계에서는 분류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나 결과변인이 2단계에서 생성된 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분류된 집단에 따른 결과변인의 차이를 알아본다(Asparouhov & Muthén, 2014).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에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값은 표 2와 같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적정한 값(왜도<2, 첨도<4)을 보여 본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 49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1차	3.12	.53	-.03	-.84
	2차	3.16	.54	-.25	-.40
	3차	3.18	.57	-.20	-.80
	4차	3.15	.53	.00	-.34
	5차	3.15	.53	-.28	-.53
예측요인: 개인	우울	1.72	.60	.84	.77
예측요인: 부모 및 또래	부모 학대적 양육태도	1.81	.73	1.10	.93
	또래소외감	2.15	.74	.31	-.29
예측요인: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도	4.14	.68	-.54	-.50

2.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1) 잠재집단의 결정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1차에서 5차까지 5개 시점의 무성장모형(χ^2=39.407, df=13, CFI=.909, TLI=.930, RMSEA=.064, SRMR=.114), 일차함수모형(χ^2=25.299, df=10, CFI=.948, TLI=.948, RMSEA=.056, SRMR=.077) 및 이차함수모형(χ^2=12.434, df=6, CFI=.978, TLI=.963, RMSEA=.047, SRMR=.075)을 각각 적

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값 차이 검증을 보완하기 위해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홍세희(2000)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RMSEA의 경우 .06이하, SRMR의 경우 .08이하, CFI와 TLI는 .90이상인 경우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 일차함수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고, RMSEA이 .015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모형의 적합도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연구(Chen, 2007)와 적합도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는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한다는 준거(Chen, 2007)에 따라 일차함수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2개에서 4개까지 하나씩 증가하여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질적인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를 보이는 잠재집단 분석 결과, 2개에서 3개로 집단의 수가 커질수록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ABIC값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를 확인한 결과, 2개에서 3개로 집단의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가 3개에서 4개가 될 때에는 추정에 실패하였다. 이에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은 3개 집단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표 3

잠재집단 분류 기준 (N = 492)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정보지수	AIC	2586.255	2522.375	
	BIC	2640.835	2549.291	
	sABIC	2640.573	2498.134	
모형비교검증	LMR	p < .01	p < .05	
	BLRT	p < .001	p < .05	추정 실패
분류의 질	Entropy	.78	.81	
분류율(%)	1	46.916	51.29	
	2	53.084	7.39	
	3		41.33	

2) 분류된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가장 낮고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으로 '완만한 증가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1.29%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5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가장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 형태를 보이는 집단으로 '급감소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7.39%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잠재집단은 시간의 흐름에도 자아존중감이 초기치에서 큰 변화 없이 상위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상위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1.33%를 차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표 4

잠재집단별 사례수, 병칭 및 함수 (N = 492)

	잠재집단	사례 수(%)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완만한 증가집단	252명(51.29)	절편	2.822	.040	.000
			일차함수	.245	.089	.000
2	급감소집단	37명(7.39)	절편	3.614	.109	.000
			일차함수	-.333	.079	.000
3	상위유지집단	203명(41.33)	절편	3.458	.142	.000
			일차함수	.017	.063	.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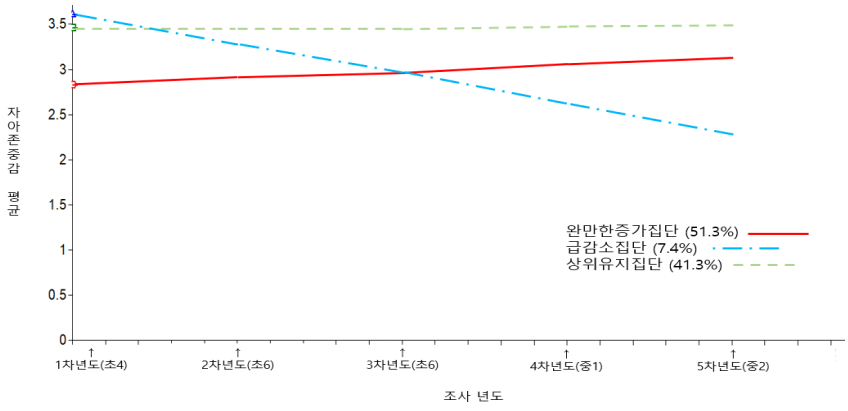

그림 1. 자아존중감의 잠재집단별 변화 유형화

3.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잠재집단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잠재집단간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잠재집단 변화 유형에 미치는 개인, 부모 및 또래, 지역사회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본 결과, 초기청소년의 성별은 자아존중감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완만한 증가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상위유지집단보다 완만한 증가집단 및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 및 또래요인 중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는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들이 지각하는 또래소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완만한 증가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요인으로 상정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개인, 부모 및 또래, 지역사회요인의 영향 (N= 492)

	변인	완만한 증가집단 vs. 급감소집단	완만한 증가집단 vs. 상위유지집단	급감소집단 vs. 상위유지집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개인 요인	성별	1.36(1.61)	.12(.58)	-1.25(1.46)
	우울	5.37(1.34)***	-2.96(.89)***	-2.41(1.29)***
부모 및 또래 요인	부모 학대적 양육태도	1.92(1.91)	.66(.80)	1.25(1.77)
	또래소외감	1.46(1.40)*	.09(.11)	1.07(.96)
지역 사회 요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도	.95(.99)	.36(.46)	-.56(.89)

*p<.05, **p<.01, ***p<.001. 아동 성별 dummy coding 0=남아, 1=여아.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5년여에 걸친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변화의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종단적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은 완만한 증가집단(51.29%), 급감소집단(7.39%), 상위유지집단(41.33%)의 3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장기간 이용한 초기청소년이 중학교 전이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안정적인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익중(2007)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관련된 두 가지 발달 가설 중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화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는 연속성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마주한 경험적 결핍과 취약한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점진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다수의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거나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아존중감 변화에 이질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초기에 급격히 감소된 자아존중감이 중, 후기가 되면서 점차 회복되며 안정화되거나 증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Harter(1990)에 근거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개인요인 중 성별은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은 적다고 설명한 Baumeister와 Sommer(1997)를 지지하는 결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를 검토한 선행연구 중 정익중(200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의 자아존중감이 남아의 자아존중감보다 조금 낮으며 이러한 차이가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연구(Emler,

2001)에 비추어 이 같은 결과는 이 연구가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청소년 후기로 넘어간다면 성별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완만한 증가집단보다 급감소집단에, 상위유지집단보다 완만한 증가집단 및 급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의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중학교를 거치면서 자아존중감이 완만히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보다는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울한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낮은 가치감을 느끼고, 인지적 왜곡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힌다는 이은경과 박성연(2011)과 일치하는 결과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취약한 성장환경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급격히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중 상담과 가족지원 등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의 온정적 관계 속에서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부모 및 또래 요인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는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들이 지각하는 또래소외감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초기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지각하는 소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완만히 증가집단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 또래소외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유창민, 2017;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회적 유대감의 대상인 또래가 적절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낄 때, 청소년이 가지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내 대인관계를 통해 지지체계를 확보하고, 적절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또래애착이 핵심적 역할을 함은 몇몇 연구(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7; Fredricks & Simpkins, 2013)가 일관적으로 규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유의미한 타자로서 친밀한 또래와 또래상담, 멘토링과 같은 또래 간 양질의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교육과 문화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상호 또래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인 또래 간 사회기술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단일 차원만을 고려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다차원적(정익중, 2007)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은 모두 청소년의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응답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자료가 아닌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관련 변인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학습습관, 학업성취, 학교적응의 문제와 관련된 복합적인 심리요인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가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의 학교 전이 과정을 아우르는 종단적 자료를 선택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원인과 결과의 통합적 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청소년 후기의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종단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00). **심리척도핸드북 Ⅰ.** 서울: 학지사.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학습습관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7,** 119-146.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양이, 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61-89.

김용회, 한창근 (2017).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방임과 학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권의식의 경로분석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58,** 141-170.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금, 양숙경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 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17-131. doi:10.14698/jkcce.2014.10.5.117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종, 유민상,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박지우 (201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단적 프로파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원경 (2014).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1**(1), 5-34.

유창민 (2017). 우리나라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회, 59,** 25-58. doi:10.24300/JKSC.2017.09.59.25

이봉주, 김광혁 (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3), 333-359.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이 훈, 신혜종 (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3-188.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71-98.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조사개요.**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7). **2016년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9). **2018년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중학생의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3), 247-276. doi:10.14816/sky.2015.26.3.247

한아름 (2017). 부모의 방임과 학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7), 29-54. doi:10.21509/KJYS.2017.06.24.7.29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1), 161-177.

홍예지, 이순형 (2016a). 남·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양방향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3**(3), 221-241. doi:10/15284/kjhd.2016.23.3.221

홍예지, 이순형 (2016b).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아동학회지, 37**(4), 17-29. doi:10.5723/kjcs.2016.37.4.17

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

식,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벅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6), 165-188. doi:10.5723/KJCS.2015.36.6.165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윤미 (2017). 아동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의 조절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14**(1), 51-70.

Abela, J. R. Z., & Sarin, S. (2002). Cognitive vulnerability to hopelessness depression: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6), 811-829.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 Adolescence, 16*(5), 427-454.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doi:10.1111/1529-1006.01431

Baumeister, R. F., & Sommer, K. L.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1), 38-44. doi:10.1037/0033-2909.122.1.38

Berger, L. M. (2004). Income, family structure, and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725-748. doi:10.1016/j.childyouth.2004.02.017

Berk, L. E. (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Allyn & Bacon: Boston.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doi:10.2307/1132368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doi:10.1111/j.1939-0025.1982.tb01456.x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cioppo, J. G., & Patrick, B. (2008).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New York: Norton.

Cerezo, M. A., & Frias, D. (1994). Emotional and cognitive adjustment in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8*(11), 923-932. doi:10.1016/s0145-2134(05)80003-1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doi:10/1080/10705510701301834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Hoffman, K. B., Ruiz, M. D., Jacquez, F.,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doi:10.1111/1467-8624.00375

Coopersmith, S. (1987).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Denissen, J. J., Penke, L., Schmitt, D. P., & Van Aken, M. A. (2008). Self-esteem reactions to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81. doi:10.1037/0022-3514.95.1.181

Emler, N. (2001). *Self-esteem: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worth.* York, England: York Publishing Services.

Fredricks, J. A., & Simpkins, S. D. (2013). Organized out-of-school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previous research.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40*, 1-17. doi:10.1002/cad/20034

Harter, S. (1990).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352-38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Hong, S. H.,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doi:10.1177/0013164403251332

Jackson, K. M., Sher, K. J., & Schulenberg, J. E. (2005). Conjoi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young adult alcohol and tabacco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612-626. doi:10.1037/0021-843X.114.4.612

Kim, J., & Cicchetti, D. (2006).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system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3), 624-639. doi:10.1111/j.1467-8624.2006.00894.x

Leary, M. R. (2001).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interpersonal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3-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eung, L. (2008). Linking psychological attributes to addiction and improper use of the mobile phone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2*(3), 93-113. doi:10.1080/17482790802078565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s. *Biometrika, 88*(3),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Plotnik, R. (2000). Economic securit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P J. Pecora, JK. Whittaker, A. N. Maluccio, & R. P. Barth (Eds.),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95-127.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ociety, 14*(3), 158-162. doi:10.1111/j.0963-7214.2005.00353.x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eth, J. E., Otterpohl, N., & Wild, E. (2017).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Mediated by anger regulation and moderated by gender. *Social Development, 26*(1), 40-58. doi:10.1111/sode.12180

Toth, S. L., Cicchetti, D., MacFie, J., Maughan, A., & Vanmeenen, K. (2000).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caregivers and self in maltreated pre-schoole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3), 271-305. doi:10.1080/14616730010000849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doi:10.1093/pan/mpq025

Wadsworth, M. E., Raviv, T., Compas B. E., & Connor-Smith, J. K. (2005). Parent and adolescent responses to poverty related stress: Test of mediated and moderated coping model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83-298. doi:10.1007/s10826-005-5056-2

ABSTRACT

Identifying the typology of the self-esteem changes among early adolescents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and testing antecedents

Hong Yea-Ji*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ology of the self-esteem changes among early adolescents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and to test the antecedents of such changes. To achieve these goals, the 1st to 5th waves of the 2nd data set involving 492 early adolescents from the Panel Study on Community Child Center were used, and from this data, a growth mixture model (GMM)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changes were identified as being in three latent classes: a steadily increasing group(51.29%), a rapidly decreasing group (7.39%), and a high-level stable group(41.33%). Secondly, among antecedents,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peer alienation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ommunity child center,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longitudinal study

투고일: 2020. 6. 8, 심사일: 2020. 8. 4, 심사완료일: 2020. 8. 13

* Seoul National University